

빛고을 전사들, 돌풍 넘어 아시아챔피언 정조준

광주FC, 창단 첫 아시아 무대서 K리그 팀 유일 예선 통과 쾌거
말레이시아 강호 조호르와 격돌
팬·시민 입 모아 8강 진출 기원



“창단 첫 아시아 무대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결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16강을 넘어 8강, 준결승, 결승까지 나아가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한 광주FC가 예선 격인 리그 스테이지를 5위로 마쳤다. 4위를 기록한 말레이시아 슈퍼리그의 강호 조호르 다룰탁집 FC와 16강에서 격돌하는 가운데 광주FC 팬들과 광주시민들은 입을 모아 승리를 염원했다.

광주FC는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최종전(8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무승부로 광주FC는 리그 스테이지를 4승 2무 2패(승점 14·골득실 +4)로 마무리했다.

광주FC는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맞대결 직후 열린 조호르 다룰탁집 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가 5-2로 종료됨에 따라 동아시아 5위가 됐다. 조호르 다룰탁집 FC는 리그 스테이지 4승 2무 2패(승점 14·골득실 +7)로 광주FC와 승점



광주FC 팬들이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최종전에서 응원을 펼치고 있다. 이정준 수습기자

이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4위에 올랐다.

광주FC와 조호르 다룰탁집 FC의 최종 순위가 잔여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확정되면서 두 팀은 16강에서 맞붙게 됐다. 다음 달 3-5일 중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1차전을 치른 뒤 10-12일 중 술탄 이브라힘 스타디움에서 2차전을 치러 합산 성적으로 파이널 스테이지(8강 이상) 진출 팀을 가린다.

이날 리그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전반에

만 두 골을 내주고도 후반에 두 골을 따라잡으며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지켜본 광주FC 팬들과 광주시민들은 토너먼트에서도 빛고을 전사들의 돌풍이 이어질 것을 확인했다.

김용환씨는 “ACLE라는 수준 높은 대회에서 우리 광주FC가 16강에 진출해 팬이자 광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16강을 넘어 더 높은 위치로 향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주씨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

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선수단이 있는 광주FC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16강을 넘어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도 광주FC의 위상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순씨도 “광주FC를 응원한 지가 벌써 10년 쯤인데 ACLE 16강이라는 꿈같은 일을 보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요즘 정말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 토너먼트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정호 감독 체제로 광주FC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최근 홈경기에는 가족 단위 팬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날 경기에서도 부자 또는 모자 등 여러 가족 단위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박현오·박서준 부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멋진 성과까지 이루고 있는 선수들에 고맙다”며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16강에서는 다치지 않고 8강 진출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격려를 보냈다.

김철아·이리안 모자도 “2023년부터 광주FC에 빠져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꼭 직관을 다니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며 “토너먼트에서도 광주다운 모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광주FC를 보며 꿈을 키우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각자의 톨 모델인 오후성과 자시르 아사니, 안영규, 김경민 등을 향해 힘찬 응원의 합성을 내질렀다.

올해 광주FC U-15에 입단한 정세영군은 “광주FC 유소년 소속인 만큼 저도 미래에 이곳에서 뛰는 것이 꿈”이라며 “선배님들께서 결승까지 계속해서 승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FC U-15 소속인 김시후·박시은·최선후군도 “광양에서 광주까지 두 시간 가까이 달려왔지만 힘들지가 않다. 16강도 응원하러 오겠다”며 “무조건 우승뿐이다. 광주FC가 ACLE 우승을 차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규빈 기자·이정준·정승우 수습기자

‘승격 도전’ 전남 “승부는 시즌 끝까지”

K리그2 개막 미디어데이

김현석 신임 감독 체제로 개편
22일 천안 원정 경기로 첫 선



김현석(사진) 신임 감독 체제로 체질 개선을 마치고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새 시즌 키워드로 ‘도전 정신’을 꼽았다. 도전자의 마음가짐으로 한 경기 한 경기 충실한다면 승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하나은행 K리그2 2025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미디어데이에는 전남드래곤즈 김현석 감독과 부주장 김경재를 비롯한 14개 구단 사령탑과 대표 선수가 참석했다.

김현석 감독은 “다른 팀 감독님들께서 모두 승격을 목표로 말씀하셨다”며 “저는 승격을 빼고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겠다. 지난해 충남아산FC에서 도전 정신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었기에 올해도 도전 정신으로 시즌 끝까지 선수들과 함께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경재 역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경기에서 상대 팀을 존중하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겠다”며 “시즌이 끝날 때는 저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전남드래곤즈 제의한 13개 구단 사령탑은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 서울이랜드FC 등을 우승 후보로 꼽았다. 유일하게 프로에 새로 합류하는 화성FC의 차두리 감독만 전남드래곤즈를 고평가했다.

김현석 감독은 “우승 경쟁 구도에서 전남드래곤즈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 안도했다. 우승 후보로 꼽힌 팀들이 서로 물고 뜯을 때 그 틈새를 노리겠다”며 “우승 경쟁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 끝까지 가서 승격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김 감독 체제로 탈바꿈한 뒤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태완 천안시티FC 감독은 “김현석 감독님은 예전부터 잘 알았고, 지도자로서 존경하는 분이다. 개막전부터 불거 돼 건강이 염려스럽다”며 “시즌 초반에 10경기 원정을 다니는데 첫 경기는 오셔서 온전도 하시고 쉬시다가 승리를 넘겨주고 가시면 어떨까 싶다”고 도발 섞인 멘트를 던졌다.

이에 김현석 감독은 “전안과 아산에서는 놀 만큼 놀았다. 지난해 충남아산FC가 천안시티FC를 상대로 2승 1무였는데 전남드래곤즈는 성적이 안 좋았다”며 “반드시 첫 승 제물로 삼겠다”고 맞받아쳤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다관왕 무더기 배출... 전남 ‘메달 잔치’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일째

금 7·동 4개 등 총 11개 메달
이운주, 크로스컨트리 3관왕
강다현·조다운·랍신 등 2관왕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이 다관왕을 다수 배출하며 순조로운 메달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한 전남 선수단은 대회 2일째인 19일 금메달 7개와 동메달 4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추가해 현재 금 10·은 2·동 5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크로스컨트리 이운주(나주다시초 6

년)가 3관왕에 올랐다. 이운주는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2세 이하부 프리 3km 결승에서 10분45초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남 클래식 2.5km 금메달(9분19초4)을 획득한 이운주는 프리 3km와 합산한 복합에서도 20분05초8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조다운(화순제일중 3년)은 같은날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조다운은 크로스컨트리 여자 15세 이하부 프리 7.5km 결승에서 23분56초7로 1위를 기록했다. 전남 클래식 5km(은메달·17분55초) 기록을 합친 복합에서도 41분51초7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키 알파인의 강다현(여수삼일중 3년)도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스키장에서

열린 여자 15세 이하부 슈퍼대회전 결승에서 44초42로 금메달을 거머쥐며 전남 대회전 금메달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10km에 출전한 티모페이 랍신과 여자일반부 스프린트 7.5km에 나선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는 각각 24분44초6과 21분58초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 2관왕에 올랐다.

크로스컨트리의 전다경(전남체육고 1년)은 여자 18세 이하부 프리 10km(36분5초8)와 복합(54분15초2)에서 동메달 2개를 손에 쥐었다. 이지효(화순초 5년)는 여자 12세 이하부 프리 3km(11분48초6)와 복합(22분29초9)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 선출

송진호(사진) 전남도체육회장이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1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송진호 회장이 18일 강원 평창훈련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각시·도체육회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체육 활성화



와 공동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송진호 회장은 1년간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며 지방 체육 지원 확대 및 정책적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송 회장은 “전국 체육 발전을 위해 각시·도체육회의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이끌

어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체육의 균형 발전과 체육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차 회의 결과 보고사항 △2024년도 협의회비 결산 승인안 △협의회 임원 선출안 △2025년도 협의회 회비 납부액 결정안 △2024년도 회계연도 감사 결과 보고 등 4건의 심의안건이 다뤄졌다.

최동환 기자